



아버지의 가르침이 삶의 버팀목 되다

한때 '아버지' 라는 장편소설이 발행된 직후 단기간에 100만 부의 판매 기록을 세운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아버지 신드롬' 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다. 그러나 아버지 신드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 땅의 아버지들은 어깨 위에 얹힌 삶의 무게로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네 아버지의 자화상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시대, 부권이 추락하거나 아예 상실돼 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아버지의 모습이 쉬지 않고 스쳐가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나의 아버지. 그분 역시 두 어깨 가득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8남매를 키웠다. 내가 태어난 곳은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그 당시 대부분의 농촌이 그랬듯이 그곳 역시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

답이 그나마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러니 썩 고구마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소나무 껍질과 오디로 허기를 면할 때가 많았다. 친구들과 들판에 나가 개구리를 구워 영양식을 대신한 기억도 생생하다.

그런데도 지금 남아 있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가난에 찌든 그런 모습이 아니다. 언제나 삶에 대한 자신감이 흘러 넘쳤고, 여유로움이 가득 찼다. 술과 담배를 즐기는 호인이다. 십팔번 노래나 다름없는 '백구 타령'으로 주변의 웃음을 자아내기 일쑤였다. 고향에 동네 어른들은 당시 아버지의 모습을 '삼분리 아이젠하워 로 묘사한다. 얼굴은 가무잡잡하지만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서구적 인물이 시골 사람들 눈에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닮은꼴로 보였던 모양이다.

참묘한 일이다. 언젠가 평소 잘 아는 어느 언론인이 나를 두고 샘월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닮았고, 나는 샘월튼을 닮았다? 월마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그와 나를 비교 수 있을까마는 집념이나 승부욕, 사람을 이끄는 힘을 보면 샘 월튼이 연상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좋은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그런 농사꾼의 정신으로 나는 주택사업에 임했다. '많이 짓기보다 잘 짓자' 는 모토 아래 지금까지 기업을 이끌어 왔는데, 그것이 고객들을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 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비록 가난한 농부였지만, 아버지야말로 인생의 가치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둔 게 아니라, 삶에서 여유로움을 찾고 있느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에 둔 것 같다.

어차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깨달은 처세술이었을까? 단 한 마지기의 땅조차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아버지의 그때 그 심경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척박한 땅 몇 마지기를 가지고 여덟 남매를 키워야 하는 그때 아버지의 그 심정, 그 고생을 나는 사업에 뛰어들고 나서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란다. 부모를 거울삼아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아이 앞에서만이라도 멘토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에게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 혹은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는 강인한 정신력을 늘 보여주려고 노력하신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배고픔과 혈혈단신 객지생활에서의 모진 풍파, 갖은 고생을 성공으로 연결시킨 저력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과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딸의 이름 '보라' 를 따서 우리 회사 아파트의 브랜드로 삼은 것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나의 멘토르가 됐던 것처럼 나도 자녀들의 멘토르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다. 딸을 키우는 마음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그 정성에 움직이지 않을 고객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아버지는 영원한 나의 멘토르다. 아버지처럼 나 역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르" 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 나는 지금도 분초를 다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



글 권홍사 (주)반도건설 회장